



'세이프 대상' 왕경선 소방장 1계급 특진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제6회 소방공무원 세이프(SAFE) 대상에 광산소방서 왕경선 소방장이 선정돼 1계급 특진했다고 밝혔다. (사진)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세이프(SAFE) 대상은 소방청에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 안전과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행정업무·화재조사·상황실 등 내근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수상자에게는 1계급 특별승진과 소방청장 표창이 주어진다.

왕경선 소방장은 온라인콘텐츠 활용 비대면 소방안전교육 콘텐츠 제작,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소방안전교육 운영계획 특수시책 수립 등의 공적으로 제6회 소방공무원 세이프(SAFE) 대상에 선정됐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최근(11월1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제6회 소방공무원 세이프(SAFE) 대상에 선정된 왕경선 소방장에게 소방위 임명장을 수여했다. 노병하기자



화순전남대병원, 간호사의 날 행사 개최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최근 미래의료혁신센터 1층 로비에서 간호부 백의회의 주최로 '2024년 간호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

'행복가득, 힐링데이'를 슬로건으로 펼쳐진 행사는 간호사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유대감을 높이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열렸다.

행사는 다채로운 먹거리가 마련된 '힐링 맛집'과 '행복 담은 사진관', '작은 선물 가게'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예경 간호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간호사들이 잠시나마 힐링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며 격려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800여 명의 직원과 의료진이 함께 참여해 간호사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고마움을 전하고 간호부에서 마련한 따뜻한 점심 식사를 나눠 먹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노병하기자



31사단, 하반기 국방병력동원 발전 지방회의

육군 제31보병사단은 지난달 31일 사단 온빛누리홀에서 행정부사단장을 비롯한 육·해·공군 동원관계관과 지방병무청장, 동원관리과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입군부대와 병무청 간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 및 완벽한 병력동원 태세 확립을 위해 '2024년 하반기 국방병력동원 발전 지방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병력동원 소요제기 결과 후속조치와 동원병력 호송계획을 검토하고 지정물 저조 특기 및 미지정 자원에 대한 분석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등 동원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사단은 수입군부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예비군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여단급 이상의 군 부대로서 전시 동원병력 호송계획, 부대개편 및 이전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한 동원소요 의견 제시 등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발표·토의를 진행했다. 정상이기자



광주·전남 혈액원, 광주시교육감표창 전달식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은 최근 자발적 헌혈문화 확산을 위해 힘쓴 광주시내 6개 고등학교 보건교사가 광주시교육감 표창을 수상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사진)

이날 표창 전달식은 혈액원에서 개최했으며, 광덕고·광주고·광주인성고·금파고·보문고·조대여고 등 광주 시내 6개 고교 보건교사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수상자 대표로 김주애(광덕고)·장은영(광주인성고)·양명주(금파고)·이민영(보문고) 보건교사 등이 참석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대신한 김동수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전달받았다.

김동수 원장은 "각 학교에서 자발적 헌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보건교사들에게 감사하다"며 "고교생들에게 헌혈의 필요성과 참여기회를 주는 것은 생명안전 뿐만 아니라 인성함양에도 중요하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광주미소라이온스클럽, 겨울 옷 무료 나눔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 광주미소라이온스클럽은 지난 3일 오후 광산구 산정동 다모아공원에서 외국인노동자 겨울 옷 무료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

이날 행사에는 김연호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 총재와 안은진 광주미소라이온스클럽 14대 회장을 비롯해 회원 40명과 자원봉사자 50명 등 총 90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한국에서 첫 겨울을 맞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날 전달된 외투 600여벌은 회원들에게 기부 받은 옷들로 마련돼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안은진 회장은 "겨울 옷 무료 나눔을 통해 외국인 이웃들이 다가오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위한 건강한 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기자



광주시, 가을 행락철 안전사고예방 캠페인

광주시는 최근 광주FC 경기가 열리는 광주축구전용경기장에서 범시민재난안전추진단과 함께 경기장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 함께해요!' 캠페인을 펼쳤다. (사진)

지난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가을 행락철 급증하는 교통사고와 축제·행사, 산행, 체육활동 등 야외 활동하기 좋은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마련했다.

광주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안전퀴즈 풀이를 통해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시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형 안전캠페인을 진행했다. 또한 시민들에게 주요 안전실천 사항으로 △보행자 우선, 차량 우회전 방법 △전동킥보드 헬멧 사용 및 1인 탑승 등 이용수칙 △축제·행사 안전거리 유지 등 시민 안전실천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노병하기자



김이강 서구청장,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제6기 상임회장에 취임했다. (사진)

협의회에는 현재 33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으며 김이강 상임회장은 국화·정부와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면서 지속가능한 마을생태계 구축하고, 회원 지자체의 협력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김이강 상임회장은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으로 마을과 골목이 활기를 되찾고,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핵심 정책이 되는 우리 서구의 마을자치 성공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며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취임 각오를 밝혔다.

'퇴마수녀' 된 송혜교... '검은수녀들' 내년 1월 개봉

'검은 사제들'의 후속편인 '검은수녀들'이 내년 1월24일 개봉한다. '검은수녀들'은 배우 송혜교가 11년 만에 주연을 맡은 한국 영화로 주목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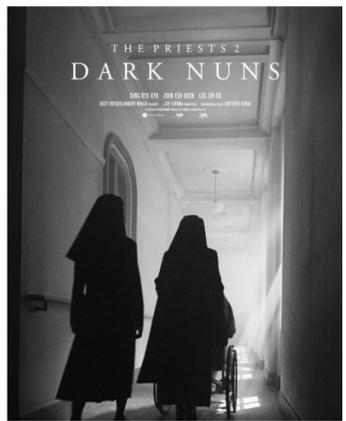
4일 영화배급사 NEW는 '검은수녀들'을 오는 2025년 1월24일 선보인다고 밝혔다. (포스터)

'검은수녀들'은 악령에 사로잡힌 소년을 구하기 위해 금지된 의식을 시작한 수녀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주연을 맡은 송혜교는 소년을 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수녀 '유니아'를, 전여빈은 유니아를 도와 검은 수녀가 되기로 한 '미카엘라'를 연기했다. 또 이진옥이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정신의학과 전문의 신부 '바오로'를, 문우진이 악령에 사로잡힌 소년 '희준'을 맡았다. 연출은 '해결사' (2010) '카운트' (2023) 등을 만든 권혁재 감독이다. '검은수녀들'은 지난 2015년 개봉

아울러 "지방자치 30년,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출범 10년을 맞이한 지금, 주민 주권 시대를 열기 위한 지자체 간의 하나된 노력이 필요하다"며 "단 한 사람의 뛰어난 리더십보다 집단 지성의 힘과 지혜로 협의회를 이끌며 연대·상생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구는 민선8기 들어 18개 동을 거점동과 연계동 협업시스템으로 정비해 현장 중심의 행정력을 강화하고 48시간 이내에 응답하는 구청장 직속 문자폰 '바로문자하랑께' 운영 등을 통해 신속·정확·친절한 행정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정상이기자



한 '검은 사제들' 후속편 격으로, 김윤석·강동원·박소담 등이 출연한 '검은 사제들'은 당시 544만명이 보며 흥행에 성공했다.

앞서 공개된 해외 포스터에는 고통받는 소년을 휠체어에 태우고 어디론가 향하는 수녀 두 사람의 뒷모습이 담겨 있다. 광지혜 기자

'슈퍼맨이 돌아왔다' 또 편성 변경... 수요일로 이동

시청률 부진을 겪고 있는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또다시 편성을 변경한다.

KBS에 따르면 KBS 2TV에서 방송하고 있는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오는 6일부터 수요일 오후 8시30분 방영된다. (사진)

지난 4월 일요일 9시15분으로 자리를 옮긴 지 6개월여 만의 두 번째 이동이다.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경쟁작인 SBS TV '미운 우리 새끼'와의 시청률 경쟁에서 뒤쳐지자 또 편성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3년 11월 첫선을 보인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기존 일요일에서 금요일, 또 화요일로 수차례 방송 시간대를 변경해 왔다.

지난 6월부터는 배우 최지우와 개그우먼 안영미를 MC로 투입하고, 내레이션 진행에서 스튜디오 토크 형식으로 바꿨지만, 시청률은 1~3%대(닐슨



코리아 전국 기준)로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최근 밴드 'FT아일랜드'의 최민환이 성매매 의혹으로 하차하면서 출연진 악재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는 개그맨 박수홍과 딸 전복(태명), 전 팬싱 선수 김준호와 은우·정우 형제, 개그맨 장동민 딸 지우 육아기를 만나볼 수 있다. 광지혜 기자